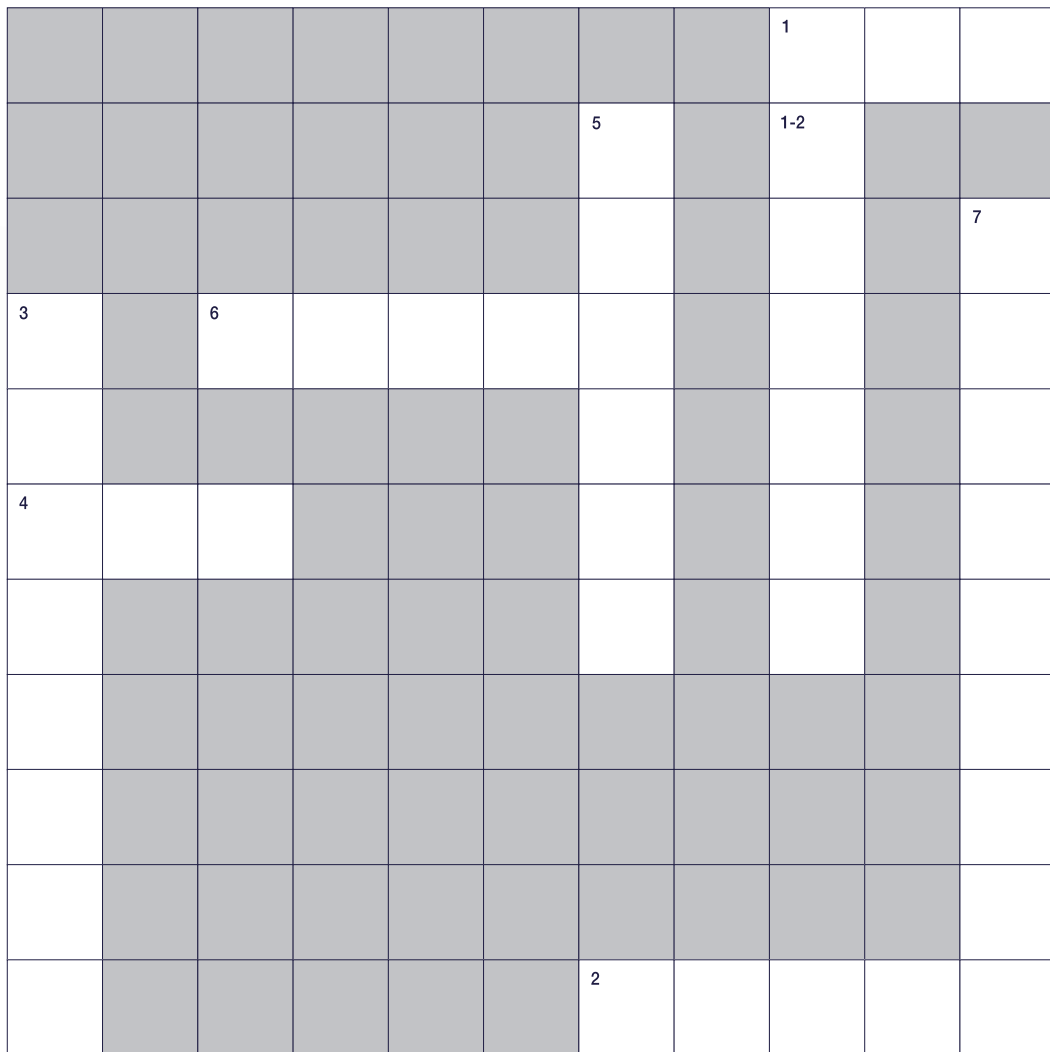


구석구석 소식을 전하는 한세의 정확한 정보통, 한세in. 그동안 사우 여러분들 잘 구독하셨나요? 지난 한세in을 다시 한 번 읽어보고, 퀴즈를 맞춰주세요! 정답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이 제공됩니다.

가로 세로 Talk! Talk!



1. 쉽고 친근한 우리 회사의 사보 제호는?
(2014 한세 여름호-Vol.001- 中)

1-2. 한세산업 및 관계회사(한세에스홀딩스, 예스24, 아이스타일24) 임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는 한세인의 도서관은?
(2015 한세 가을호-Vol.006- 中)

2. 한세의 경영 활동 프로세스를 관리하며 '최적의 한세 시스템'을 구축하는 팀의 이름은?
(2015 한세 봄호-Vol.004- 中)

3. 어린이들의 스포츠 활동과 도전정신 확립에 도움을 주기위해 한세에스24홀딩스와 한세드림이 주최하는 축구 잔치의 이름은?
(2015 한세 여름호-Vol.005- 中)

4. 중미업계 최초, 한세 니카라과 법인에는 000이 설치되어 있다.
(2015 한세 봄호-Vol.004- news letter 中)

5. 베트남의 특성에 발맞춰 현지화한 해외법인인은?
(2015 한세 가을호-Vol.006- 中)

6. 1998년 런칭한 데님 캐주얼 패션 브랜드 'FRJ Jeans'를 보유한 패션유통 전문기업의 이름은?
(2015 한세 겨울호-Vol.007- 中)

7. 영업팀에서 구매한 원단과 부자재가 해외공장으로 갈 수 있도록 선적 서류를 작성하고 통관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은?
(2015 한세 가을호-Vol.006- 中)

답은 경영기획팀 김유리 대리 메일
(yurikim@hansae.com)로 보내주세요

HANSAE; in



COMPANIES

계열사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TEAM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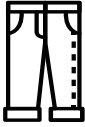
우리의 기동, 샘플개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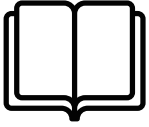
PHOTO EXHIBITION

사우들의 행복 한 컷

COMMERCIAL HISTORY

한세를 말하다

FRJ Jeans	한세드림(주)
	
FRJ	한세드림
	
(주)에프알제이는 1998년 런칭한 데님 캐주얼 패션 브랜드 ‘FRJ Jeans’를 보유한 패션 유통 전문기업이다. FRJ Jeans는 국내 1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FRJ Jeans를 중저가 데님 캐주얼 패션 브랜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 FRJ Jeans는 ‘DENIM BY CONTEMPORARY’ 콘셉트를 바탕으로 시즌 트렌드는 최대한 흡수하되, 기존 마니아 고객을 배려한 섬세한 전략과 신규 고객을 창출하기 위한 RE-BRANDING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2015년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는 백화점 및 기타 유통점 바이어들을 초청하여 FRJ Jeans의 새로운 브랜드 방향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차별화된 워싱과 중저가 캐주얼에서 보여지지 않은 원단의 개발로 시즌마다 좀 더 새로운 모습의 데님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했다. 실제로 2016년 S/S시즌에 맞춰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여 만든 커피데님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데님과 크로스 코디가 가능한 무드의 우븐 상품 구성을 강화하여 데님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과 젊음이라는 상징성을 다양한 아이টে에 녹여내고 있다. 고유한 색깔을 가진 정통 데님 브랜드라는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FRJ Jeans는 중저가 데님 시장 그 이상을 바라보며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 FRJ Jeans는 데님의 가격 경쟁력 및 포지션 확대에 집중하고 모든 아이템의 전략상품 구성을 확대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가격대와 넓은 선택의 폭을 제시해나갈 예정이다.	15년 차 유아동복전문 국내 대표 젊은 기업 ‘한세드림’ 2001년 설립된 한세드림은 2014년 독자개발 브랜드 모이몰론을 유아동복 최초로 한국과 중국 시장에 동시 론칭했다. 한세드림은 2015년 국내외 매출 950억 원, 2016년 1,300억 원을 달성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아동복기업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프렌치 시크 감성의 대한민국 리딩 아동복 브랜드 ‘컬리수’ 한세드림의 ‘컬리수’는 올해로 15년 차가 된 아동복 브랜드로 현재 대형마트 130개 매장, 로드점 70개 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2015년 가을 프렌치 시크 모던(French Chic Modern) 감성으로 새롭게 콘셉트를 전환, 트렌드를 빠르게 인지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신세대 주부들의 니즈를 만족시켰다. 유니크한 북유럽 감성의 1등 유아복 브랜드 ‘모이몰론’ 모이몰론은 2014년 7월 국내 유아업계 최초로 한-중(韓-中) 시장에 동시 론칭한 한세드림의 2번째 브랜드로 유아복 및 유아용품 전문 브랜드다. 모이몰론은 북유럽 스타일의 유니크한 감성으로 2015년 160개의 매장을 돌파했다. 국내 유일의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키즈 멀티 스토어 ‘플레이키즈-프로’ 한세드림은 나이키(NIKE), 나이키 에스비(NIKE SB), 조던(JORDAN), 컨버스(CONVERSE) 브랜드로 구성된 키즈(4세~15세) 멀티 스토어 ‘플레이키즈-프로’의 7월 첫 매장 오픈을 시작으로 스포츠 분야로의 출사표를 던졌다. 2015년 롯데백화점 등 13개의 매장을 오픈했고 2016년에는 컨버스 단독매장을 포함한 70개 매장에서 1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동아출판	YES24.COM
	
동아출판	YES24
	
동아출판은 2015년 창립 70주년을 맞아 70년 역사의 전통을 되새기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전적인 한 해를 보냈다. 2015년 10월 열린 70주년 기념식에서는 동아출판을 계속 혁신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내일의 꿈을 만들어가는 교육문화 1등 기업’ 및 ‘2025년 5,000억 매출 달성’의 비전을 선포하였다. 1945년 창립과 함께 우리나라 첫 교과서 ‘신생국어독본’을 개발·공급한 동아출판은, 이후 계속 그 시대에 맞는 초·중·고 교과서를 개발해왔고, 현재의 교육과정에서는 초·중·고 전체 153종의 교과서를 개발 공급하고 있다. 또한, 2015년 10월에는 국정교과서 발행사업 입찰에 참여해 초등 사회/도덕 교과서 발행사로 선정되어, 2016년 국정교과서 발행사 지위를 다시 획득하게 되었다. ‘동아전과’, ‘하이탑과학’으로 대표되는 학습 참고서 사업은 2015년 변화된 교육환경 및 학습패턴에 맞는 신제품으로, 하루 15분~30분 복습을 통해 공부습관을 키울 수 있는 초등 교재 ‘차이를 만드는 시간’과 중학교의 다양한 실전수준 학교 시험문제 훈련이 가능한 ‘빨리 강해지는 수학’을 개발하여 새로운 방식의 시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2016년을 맞아 핵심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문제집으로 공부하더라도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유도하는 일명 ‘WHY 학습법’을 전면 적용한 ‘백점맞는 수학/국어/과학/사회’ 교재를 리뉴얼하여 출시하였고, 중학수학의 개념 전문 학습서인 ‘빨리 이해하는 수학’을 신간 출시하여 먼저 출간한 실전 문제서와 짝을 이루도록 하였다. 또한, 11년째 진행하고 있는 임직원 기부 방식의 불우환경 학생들 대상 장학사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임직원들에게는 나눔의 실천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인터넷서점 YES24는 전자상거래 초창기인 1999년에 시작해 16년 동안 시장점유율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전자책, 음반·DVD, 영화·공연 예매 등에서도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회원 수 1,000만여 명, 일평균 페이지뷰 약 400만 페이지, 일평균 방문자 수 약 30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YES24는 총알 배송, 고객 만족 센터와 소멸하지 않는 포인트 제도, YES마니아, 최저 가격 보상제 등 혁신적인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도모하고 있다. 도서뿐만 아니라 전자책, 음반·DVD, 영화·공연 예매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YES24는 2010년 3월부터 업계 최초로 모바일 쇼핑 서비스를 시작하여 매년 매출이 약 2배 성장하며 모바일 서점 분야에서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인터넷서점 1위로서 중고도서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제휴를 통한 매출 강화와 마니아 서비스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2015년 9월에 출시된 크레마 카르타를 비롯한 전자책 단말기 활용 플랫폼을 강화하고, 과금 모델에 주력할 예정이다. 신동력사업인 ENT에서는 콘텐츠 소싱, 공연장 확보 등 투자 확대와 동시에 본격적으로 해외 비즈니스에 진출한다. 또한, 패션사업부분 확장을 위해 아이스타일24의 시스템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TEAM INTERVIEW

한세의 거래가 시작되는 첫 관문

영업팀에서 오더를 받아오는 순간부터 샘플개발실은 바이어가 요구하는 샘플 이상의 샘플을 제작하기 위해 치열하게 매진한다. 바이어 특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빠른 제작을 위한 스피드가 필요하고, 동시에 품질도 담보돼 있어야 한다.

옷은 옷을 구입한 사람이 맵시를 내면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야 하고, 타인에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패턴, 재단, 봉제의 각 파트들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뤄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2팀의 김태순 팀장이 샘플개발실 업무에 관해 설명했다.

“샘플개발실은 32명의 직원이 바이어별로 1, 2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패턴, 재단, 봉제 세 파트로 세분화되어 있고요.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옷을 구매하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한세와 거래하는 각 바이어들의 성향에 따라 샘플이 제작됩니다. 샘플개발실은 바이어별로 팀과 세부 업무가 구분되는 맞춤 서비스

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샘플 하나당 적게는 두 번, 많게는 서너 번의 작업과 컨펌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견지도 못하는 아이에서부터 성인들까지,



겉옷부터 속옷까지, 샘플개발실은 전 세대가 입는 다양한 옷을 만든다. 이런 단순한 기술력과 몇 가지 상식만으로 작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옷에 대한 투철한 직업 정신과 기술력, 그리고 노하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바느질 한 뼘의 차이에서도 모양이 다르게 나오거나 착용감이 불편할 수 있는 게 옷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샘플개발실 직원들이 느끼는 책임

감은 어마어마하다. 공장은 이미 생산라인이 다 갖춰져 있고 스케줄까지 잡혀 있는데 바이어가 샘플에 대해 만족하지 못해 OK 사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업무는 그야말로 마비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세의 샘플개발실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 바이어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전담해서 일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샘플을 만들겠다는 샘플개발실 직원들의 근성과 오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1팀의 박종근 팀장은 직원들에 대한 애정을 아끼지 않는다.

“저희 직원들은 바이어에게 인정받기 위해 타사 샘플개발실보다 서너 배 이상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한 기술력의 측면에서도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근속 연수가 평균 10년입니다. 15년 이상 된 분들도 많고요. 이들이 모두 샘플개발실의 뿌리인 셈입니다.”

기술력에 대한 큰 자부심으로

더 큰 성장을 기대하다

샘플개발실은 3개월 정도 해외 근무를 하게 되어 있다. 입사 때부터 해외 근무를 했다는 2팀 정종화 대리는 해외 근무 경험이 직원들의 능력과 실력을 키워준다고 말한다.

“샘플개발실은 질 좋은 제품이 최대한 빨리 생산될 수 있게 아이디어를 짜고 생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공장 시스템에 대해 꿰뚫고 있어야 하고, 현지 공장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파악하고 있



어야 합니다.”

옷마다 투입되는 인원수가 다르고 공장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제품이 생산되는 현지 공장에 대해 모른다면 탁상공론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이처럼 샘플개발실은 해외 근무를 통해 현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작업 공정을 줄임으로써 생산 공정을 최적화한다. 이러한 노력은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도 이어진다.

“저는 샘플 하나하나가 한세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업팀이 저희가 만든 샘플을 갖고 바이어에게 갔을 때 바이어들이 ‘퍼펙트 하다’는 칭찬을 하고, 영업팀에서 오더를 많이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일하는 보람을 가장 많이 느끼는 순간입니다.”

정종화 대리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어떤 바이어를 만나도 자신들이 만든 샘플을 내놓으며 “이런 샘플을 본 적이 있느냐?”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한다는 샘플개발실. 이들의 무기는 갈고 닦은 자질과 실

력이다. 얼마 전 샘플개발실에는 경사가 있었다. 지난 11월에 개최되었던 ‘제29회 섬유の日’ 기념식에서 박종근 팀장과 김태순 팀장이 섬유협회회장상을 받게 된 것. 샘플개발실 직원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저는 김태순 팀장님과 10년을 함께 일했어요. 팀장님이 패턴을 뜨면 특별히 말씀을 안 하셔도 어떤 의도로 작업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마음이 맞다는 게 바로 그런 거 같아요. 오랜 기간 함께 일했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최고가 되겠다’는 같은 목표가 있으니까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종화 대리의 말에 김태순 팀장이 미소 지었다. 박종근 팀장과 김태순 팀장은 이른 시일 내에 샘플개발실 전 직원이 하

나 되는 장을 마련하고 싶다고 했다. 그런 시간을 통해 한세를 든든하게 받치는 뿌리 역할을 굳건히 다지고 싶다는 생각이다. 두 팀장은 샘플개발실이 헤쳐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잊지 않았다.

“쉬운 기술은 이젠 동남아 지역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저희는 봉제 방법 등을 더 연구해서 업그레이드된 기술력을 선보여야 합니다. 세계적인 트렌드가 ‘패션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짙어질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샘플개발실 전 직원들이 노력해서 한세가 한발 앞서 나가는 진취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박종근 팀장의 말에 김태순 팀장은 “한세 개발실에서는 안 되는 게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별 다섯 개 이상의 실력을 갖춘 팀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뜨거운 열정이라면 별 다섯 개 이상은 정말 식은 죽 먹기 아닐까. 샘플개발실 전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새해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MAKE HIGH-

기술력을 갖춘 한세의 튼튼한 뿌리

샘플개발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 있다. 샘플개발실은 바이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팀이면서 한세실업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팀이다.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10년 이상. 15년 이상 된 직원도 수두룩하다. ‘한세의 얼굴’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최고 품질의 샘플을 만들겠다는 샘플개발실 직원들의 열정이 천바람 부는 겨울을 뜨겁게 달군다.

CLASS SAMPLE



PHOTO EXHIBITION

조명이 눈부시던 무대에서의 열창, 동료와의 시원한 여름밤의 맥주 한잔, 땀 흘리며 열심히 뛰던 그 날의 기억. 한 장의 사진은 천 개의 단어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한다고 하죠. 사진을 보며 한세인의 소중한 순간 속에 풍덩 빠져볼까요?

찰칵찰칵!
그날의 추억을 찍다



시원하게

입사 첫째 만난 소중한 동료들,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 주는 진짜 친구들! 금요일 여름밤 야근 후, 시원한 맥주 한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올해보다 나은 2016년이 되자!"

_ 수출1C본부5부2팀 강현구 주임

뛰어라!

반기 1회, VN / TN 법인의 한국인 및 제3국인 관리자 중 모든 남직원 이 참여하는 남직원 달리기 대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등수 보다는 본인의 이전 기록을 깨고자 평소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세상에나! TN의 모 주임은 대회 1주일 전부터 하루 2km씩 달리기 연습을 했다고 하네요. 금년도 YB 조에서는 만년 챔피언 나이기 최정길 과장님의 아름다운 양보(고의성 4등?)로 새로운 챔피언 VN8공장 차병직 주임이 탄생하였습니다.

_VTN MAIN OFFICE 김영철 인턴

뜨겁게!

늦게까지 항상 고생하는 우리 팀 직원들... 2015년 잘 따라주고 열심히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2016년도 뜨겁게 파이팅~! 7공장 어서 와~

_ INDONESIA-UTAMA MAIN OFFICE 유보람 주임



우리는 하나다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주신 동료들 덕분에 멋진 공연장에서 관람객이 아닌 공연자의 입장이 되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연주하고 내려온 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갔지만 생애 최고로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_ 경영분석1팀 박현욱 주임

반짝반짝 따뜻한

입사 후 첫 아유회를 제 고향 대구로 가서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가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부산으로 놀러 가서 찍은 의미 있는 단체 사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 마무리하며 많은 경험을 통해 성숙해진 저희 팀이 2016년에는 준비된 자세로 많은 일을 더 수월하게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의 정이 있는 523팀! 2016년도 파이팅입니다!

_ 수출5본부2부3팀 박재균 인턴



뛰고 또 뛰고

추운 겨울? 비가와도, 눈이 와도, 해가 뜨지 않아도 한다 조강.

_ 수출3B본부5부3팀 장주희 대리

WELL MADE COMMERCIAL HISTORY

한눈으로 보는 한세실업 광고의 역사

‘한세실업 광고’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2002년부터 시작된 인물 시리즈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한세의 광고 발자취를 따라가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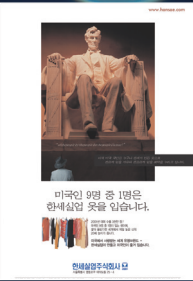
한세실업의 광고는 인물 시리즈 이전에 1998년 〈패션계의 콜럼버스〉, 2000년 〈패션 프론티어 - 한세실업〉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98년 〈패션계의 콜럼버스〉광고는 모험심과 개척정신으로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처럼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벤처 정신으로 세계 최대의 미국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2000년 제작된 〈패션 프론티어 - 한세실업〉광고는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바탕으로 전 세계 유명 브랜드와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연 2,500만 장 생산의 세계 굴지의 패션 회사로 우뚝 섰음을 홍보하였습니다. 이 광고에서 처음으로 ‘미국인 10명 중에 1명은 한세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삽입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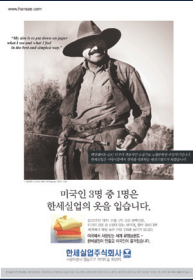
이후 2002년부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미국인 ○명 중 1명은 한세실업의 옷을 입습니다.〉 광고 시리즈가 제작되었습니다. 2002년 미국인 9명 중 1명으로 시작된 광고는 2003년 7명 중 1명, 2004년 6명 중 1명, 2005년 5명 중 1명, 2006년부터 3명 중 1명으로 변화하며 한세의 눈부신 성장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한세실업의 옷은 1초에 5벌씩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라는 광고 카피로 뉴욕에서도 한세실업을 만날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2010년부터 인물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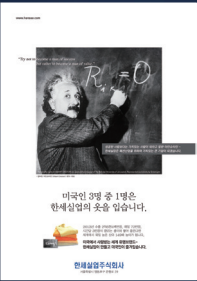
그럼 한세실업 광고에 등장했던 인물들을 살펴볼까요? 미국인들도 한세실업의 옷을 입는다는 광고에 맞게 항상 미국을 대표하는 인물로 광고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 제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를 시작으로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 소설가 마가렛 미첼, 무용가 이사도라 던컨,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 군인 올리시스 S. 그랜트, 비행사 아멜리아 에어하트, 음악가 레이 찰스, 작가 겸 사회사업가 헬렌 켈러,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음악가 마리아 칼라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총 13명의 인물이 한세실업의 광고모델로 활약했는데요, 그중 남자가 8명, 여자가 5명이었습니다.

2016년 한세실업의 광고모델은 과연 누구일까요? 임직원 여러분들의 투표에 의해 미국을 대표하는 군인이자 한국과도 각별한 인연이 있는 더글러스 맥아더가 2016년 광고모델로 선정되었습니다. 곧 더글러스 맥아더를 모델로 한 멋진 광고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세실업의 변화와 성장의 시간을 함께한 한세실업의 광고 시리즈. 앞으로도 한세실업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더 널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바랍니다.

1998	2000	2002	2003	2004	2005
					
패션계의 콜럼버스	패션 프론티어 한세실업	에이브러햄 링컨 편 미국인 9명 중 1명은 한세실업의 옷을 입습니다.	존 F. 케네디 편 미국인 7명 중 1명은 한세실업의 옷을 입습니다.	찰스 린드버그 편 미국인 6명 중 1명은 한세실업의 옷을 입습니다.	마가렛 미첼 편 미국인 5명 중 1명은 한세실업의 옷을 입습니다.

2006	2007	2008	2009	2010
				
이사도라 던컨 편 미국인 3명 중 1명은 한세실업의 옷을 입습니다.	닐 암스트롱 편 미국인 3명 중 1명은 한세실업의 옷을 입습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편 미국인 3명 중 1명은 한세실업의 옷을 입습니다.	뉴욕 편 한세실업의 옷은 1초에 5벌씩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올리시스 S. 그랜트 편 미국인 3명 중 1명은 한세실업의 옷을 입습니다.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아멜리아 에어하트 편 미국인 3명 중 1명은 한세실업의 옷을 입습니다.	레이 찰스 편 미국인 3명 중 1명은 한세실업의 옷을 입습니다.	헬렌 켈러 편 미국인 3명 중 1명은 한세실업의 옷을 입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편 미국인 3명 중 1명은 한세실업의 옷을 입습니다.	마리아 칼라스 편 미국인 3명 중 1명은 한세실업의 옷을 입습니다.	

A PIECE OF HANSAE NEWS



3. '제29회 섬유의 날' 기념식, 한세실업 주상범 전무이사 외 3명 수상
11월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섬유센터 3층에서 열린 '제29회 섬유의 날' 기념식에서 한세실업 주상범 전무이사가 수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1_3본부개발실 박종근 차장, 수출2_5본부개발실 김태순 차장, 수출1C본부5부 박태훈 차장이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2.

이용백 대표이사, '2015 대한민국 좋은기업 최고경영자상' 수상
한세실업 이용백 대표이사가 '2015 대한민국 좋은기업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했다. 지난 11월 17일 한국표준협회는 이용백 한세실업 대표이사, 주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3명을 '2015 대한민국 좋은기업 최고경영자'로 선정, 발표했다. '대한민국 좋은기업'은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 지표로 지난 2012년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정보연구소가 공동 개발했다. 최고경영자상은 리더십, 성과 등 기업 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기여도 등을 두루 망라해 평가한다.



4.

한세실업 니카라과 법인, 현지 노동부 장관 공로패 수여
한세실업 니카라과 법인이 지난 11월 11일 알바 루스토레스 니카라과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한세실업이 니카라과로부터 상을 받은 것은 지난 1월 감사패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9월에는 호세 엔리케 노동부 차관이 한세의 현지법인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하고 싶다며 한세실업 베트남 법인과 여의도 본사를 방문했으며, 올해 1월 감사패에 이어 이번에도 직접 니카라과 법인을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6.



봉사동호회 [DREAMJOINT HANSAE 24] 2015년 사랑의 김장 나눔
12월 5일, 봉사동호회 [DREAMJOINT HANSAE 24] 봉사단원과 7부문 인턴 직원들이 금천구 가산동 이주민 무료급식소에서 '2015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이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 200여 포기는 이주민 무료급식소를 통해 이주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김장 나눔에 소요된 비용은 봉사동호회 회사 지원금과 G24 밴드 동호회 정기공연 수익금으로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한세드림(주)

5. 한세드림, 월 매출 100억 첫 돌파
한세드림이 창사 이래 최초로 월 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 9월 기준 월 매출액이 110억 원을 넘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상승했다. 이는 15년 전통의 아동복 브랜드 '컬리수'의 콘셉트 리뉴얼과 유아 패션 시장에서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모이몰론' 브랜드의 빠른 성장세에 힘입은 것이다. 컬리수는 브랜드 콘셉트를 프렌치시크 모던으로 바꾸고 매장을 리뉴얼했으며, 모이몰론은 홈플러스 상사점, 전주 효자점, 롯데마트 수완점, 전북 익산점 등이 월 매출 1억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WE ARE FAMILY!

우린 한가족!

함께여서 더 행복한 우리 한가족!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소식터로서, 사보 '한세in'이 '한세인'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니 동료의 중요한 소식을 깜빡 잊어버리기도 하는데요. '한세in'을 통해 기쁜 시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도란도란 축하의 이야기꽃을 피워봅시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문요한 주임	수출5본부3부1팀	10월 6일
우경희 대리	수출1C본부8부2팀	11월 5일
김은희 대리	수출1C본부5부2팀	11월 5일
김주연 주임	수출1A본부2부2팀	11월 5일
신민규 주임	수출1C본부3부2팀	11월 12일
김민의 주임	수출5부문물류팀	11월 19일
송상민 주임	수출3본부2부2팀	11월 26일
이현주 주임	수출7본부2부1팀	11월 26일
최정인 과장	R&D TD 1팀	11월 26일
백나영 대리	수출5본부5부2팀	12월 3일
김재영 대리	수출1B본부1부1팀	12월 10일
김건수 대리	해외지원팀	12월 10일
정지영 대리	수출1B본부6부1팀	12월 10일
이승준 대리	수출3본부1부5팀	12월 17일

탄생을 축하합니다

김동준 대리	DBM팀	10월 1일
김건아 주임	경영정보팀	10월 3일
정익훈 주임	VTN 5공장	10월 8일
윤용필 대리	수출3본부1부3팀	10월 14일
배숙진 주임	수출6본부2부3팀	11월 9일
홍성준 대리	수출5본부3부3팀	11월 9일
정용재 대리	수출5본부5부2팀	11월 10일
심영호 대리	인사팀	12월 3일
천송학 대리	수출5본부7부2팀	12월 5일